

■ 광주시교육감 선거 시끄러운 내막 들여다 보니

초·중등 싸움에 전교조가세...내분 양상

‘S중 납품비리’ 계기 갈등 불붙어

“누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해당 교육장 당선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아예 드러내놓고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지난 7월31일 실시된 광주시교육위원 선거 당선자 7명 역시 자신을 지지했던 학교운영위원의 지원을 앞세워 활발한 접촉을 펼치고 있다. 주요 보직 인사권이 ‘지원 조건’으로 오가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양분됐던 교육계는 이번 S중 기자재 납품비리 사건과 학교 교정의 운영될 서부교육장 인사청탁 및 급식업체 선정 압력 주장으로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안 교육장 지지 세력들은 “윤 교육장이 김원본 교육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최근

급성장했으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관리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박 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뻔히 예상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이해하겠다”는 반응이다.

반면 윤 교육장 본인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S중학교 학교 교정이 지난 1~3월에 발생한 일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밝힌 지의가 의심스럽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30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박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또 다른 S중 학교 교정이 전교조 출신 교장이며, 박 교장도 같은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은 임기만료 하루를 앞둔 30일 기자회견에

서 “광주·전남희망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권유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희망연대”는 옛 ‘광주·전남민중연대’로 민노총·농민회·청년회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당초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있던 ‘광주·전남교육연대’는 교육자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서 교육감 후보를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광주·전남희망연대’에 결정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역시 ‘광주·전남희망연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 교육계 한 관계자는 “초·중등으로 나눠진 시교육청이 S중 기자재 납품비리 사건을 계기로 극심한 내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입지자들이 연론을 선거전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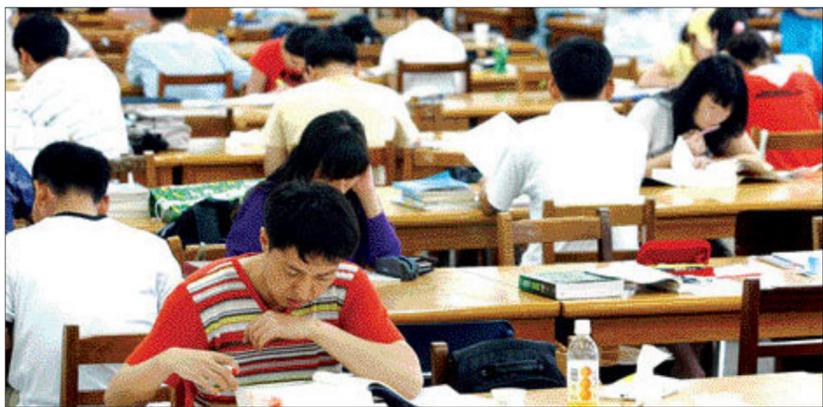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오는 10월23일 치러질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광주 교육계가 극심한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지를 밝힌, 초등 출신의 안순일 동부교육장과 중등 출신의 윤영철 서부교육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물밑에서 형성됐던 초·중등의 전통적 갈등 구조가 광주 S중 기자재 납품비리 사건을 계기로 수면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전남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희망연대’도 30일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 선거전이 극도로 ‘편 가르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현직 교육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안순일 교육장과 윤영철 교육장이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일찌감치 밝히면서 광주시교육청은 물론 동부·서부교육청 장학관 및 사무관 이상 주요 간부까지 오래전 지지 세력별로 양분됐다.

시 교육청의 경우 ‘A과장은 안 교육장 편, B과장은 윤 교육장 편’이라고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될 정도다. 동부 및 서부교육청은



블 밝힌 도서관...취업준비 열기
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전남대 등 지역 대학 취업희망자들이 기업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취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일명 백도)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내버스 협상 진통

파업 기결-막판 타결 가능성

광주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쟁의 찬성’을 결의해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노조는 30일 “10개 회사 노조 조합원 1천422명이 쟁의 찬반 투표에 참여해 89%의 노조원이 9월1일 파업 돌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사와 광주시 등

노·사·정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시내버스 업계의 숙원인 준공영제 도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임금 인상률을 놓고 30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사·정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결판을 내자고 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중·소규모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

광주시, 난개발·자연훼손 방지 조례 제정 추진

광주시는 30일 지역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택지 개발·도로 건설·산단 조성 등 대규모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환경영향평가를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국가 기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강화했다.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공단 조성·체육시설 등 12개 분야 36개 사업으로 ▲동·식물 ▲지질 ▲수질 ▲토양 등 20여 개 분야에서 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택지개발은 30만㎡ 이상 일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시 조례에 따라 15만㎡ 이상이면 평가 받게 된다. 도로 건설의 경우 국가 기준은 4km 이상이고, 시 기준은 2~4km 미만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기업 및 투자유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시의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국가 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미달한 사업의 경우 환경훼손이 심각함에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개발을 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가을이 벌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린 뒤 개겠다. 8월 31일 (윤 7월 8일) <전국날씨>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regions]
[Table of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ju]

경유차 휘발유 주입 ‘주의’

광주·전남 잦은 말뚝...차량손상 구제방안 없어

경유 승용차인 신허 프라이드를 운전하는 주부 박모(37·화순군 화순읍)씨는 최근 화순 모 주유소에서 경유 대신 휘발유를 넣는 ‘사고’를 당했다. 주유소 측은 “연료통에서 휘발유를 빼고 깨끗이 씻어내면 된다”고 했지만, 박씨는 엔진이 훼손됐을 수 있다는 자동차 판매사의 말에 따라 250만원 피해 배상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부터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업계에서 출시한 경유 승용차 모델은 클릭·베르나·아반떼·쏘나타·프라이드·세라토·로체·푸조·폴크스바겐 등 10여 종이다.

경유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휘발유를 잘못 넣는 사례가 매달 수차례 발생, 잦은 말뚝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혼유(混油)로 차량이 손상되는 데 대해 이렇다 할 구제방안이 없어 운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연료가 잘못 주입됐을 경우 다행히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연료통만 청소하면 되지만, 시동을 걸었을 땐 엔진 및 연료와 관련한 부품들을 교체해야 한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가족같은 가사 도우미에 감사”
팔순 독립유공자, 광주보훈청에 편지
[Portrait of an elderly man]
[Text about a letter of gratitude from an 80-year-old veteran to the Kwangju Veterans Affairs Office]

Shinyang Park Fitness Membership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모집 안내
[Advertisement for Shinyang Park Fitness with membership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